완도 신지대교 체증 극심

명사십리 개장 이후 최대 하루 5만명 몰려
본격 무더위…광주·전남 휴일 피서객 10만명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30일 광주·전남은 낮 최고기온이 32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유명 해수욕장과 계곡 등은 10만명에 달하는 피서객들로 넘쳐났다. 또 산과 바다를 찾아 휴가를 떠나는 차량이 평소보다 20% 가까이 증가했고, 곳곳의 도로가 정체현상을 빚었다.

◇발 디딜 틈 없는 해수욕장=완도읍과 신지도를 잇는 '신지대교'가 개통된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는 이날 개장 이후 최대인 5만여명의 피서인파가 몰려들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직원 4천여명도 하계 휴양소로 지정된 이곳을 찾았다.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에도 1만여명이 입장했으며,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8천여명)과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2천여명)도 피서객들로 북적거렸다. 전남도는 도내 48개 해수욕장에 10만명에 가까운 피서객이 몰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의 해수욕장 방문객은 ▲지난 2003년 186만명 ▲2004년 217만명 ▲2005년 278만9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올해 주요 해수욕장 18개소에 운영 중인 481동(숙박용)의 '해변 텐트촌' 예약도 2천211건에 1만1천855명(28일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 증가했다.

◇계곡·놀이공원도 북적=중복(中伏)인 이날 무등산에는 3만7천여명이 증심사·원효사·덕산계곡의 시원한 나무그늘을 찾았다. 내장산 역시 5천여명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담양 가마골과 한재골, 장성 남창계곡 등 도심에서 가까운 계곡에도 가족 단위 피서객 수천명이 닭고기·장어 등 미리 준비한 복날 음식을 들며 무더위를 식혔다.

광주 금호패밀리랜드에는 5천여 시민들이 수영장과 놀이공원, 동물원 등을 찾았고, 최근 개장한 화순 금호리조트 '아쿠아나'도 2천800여명의 물놀이객들로 붐볐다.

◇도로 몸살=피서객들이 도심을 벗어나면서 도로 곳곳이 큰 혼잡을 빚었다. 2차선인 '신지대교'는 오전 11시부터 4천대가 넘는 차량이 몰려들면서 4시간 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2천 면인 주차장이 부족해 피서객들이 길가에 주차, 입구 부근이 크게 밀렸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에는 29~30일 이틀간 7천여 대의 차량이 몰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에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차량은 평소보다 20% 많은 3만9천여 대였다.

◇불편 여전=소나무 숲과 금빛모래로 유명한 송호리 해수욕장은 예년에 비해 모래가 유실, 많은 피서객이 발길을 돌렸다. 군은 그러나 1억원이 넘는 학술용역비 때문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해수욕장도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등이 성행,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화려한 휴가' 촬영 시작

5·18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30일 광주 전남대 정문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안성기·이요원·이준기 등 인기 스타들이 출연하고, 총 1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될 이 영화는 내년 3월 개봉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필리핀 가정부 DNA 국과수에 분석 의뢰
영아유기 사건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방배경찰은 프랑스인 C(40)씨 집 가정부인 필리핀인 L(여·49)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L씨는 C씨가 프랑스로 휴가를 떠나기 이틀 전인 6월27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달 27일 다시 입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L씨도 이번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기들이 쌍둥이인지 여부, C씨 집에서 확인된 혈흔과 시신 1구를 감싼 수건에서 나온 소량의 모발에 대한 DNA 분석 결과 등은 국과수에서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각종 진기록 쏟아낸 장마 '끝'

예년보다 2주 길고 강우량 2배
광주·전남 열대야 본격 시작

말 많고 탈 많았던 올해 장마가 끝났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면서 엄청난 피해와 함께 기상예보 사상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길고 비 많이 온 올해 장마=지난달 14일 시작된 올해 장마는 46일간으로 평년(32~33일)보다 2주 가까이 더 계속됐다. 광주·전남 역시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37일간 지속, 1998년(35일간)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최근 10년 새 가장 길었다.

올해 평균 강우량은 717.3mm로 평년 346.2mm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강원도 홍천에는 1천205.5mm, 인제에는 999.0mm의 비가 각각 쏟아졌다. 남부지방에서는 여수에 745.7mm가 내려 최근 10년새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고, 광주는 613.5mm로 지난 2003년(643.2mm) 이후 두번째였다. 장마로 인한 피해는 ▲사망·실종 54명 ▲이재민 2천여가구 5천명 ▲재산피해 1조9천억원 등이다.

◇장마 왜 길었나=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한데다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은 상대적으로 약해 장마전선이 장기간 머물렀다. 또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에 정체하면서 남북으로 계속 진동, 많은 비를 뿌렸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에위니아'(EWINIAR) '빌리스'(BILIS) '개미'(KAEMI) 태풍 3개가 잇따라 영향을 미치면서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대량 유입돼 많은 비를 내렸다.

◇무더위 본격 시작=30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광주·전남은 이날 아침(새벽 3시 이후)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열대야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그러나 8월에도 북쪽의 찬 기운이 일시 남하해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8월 이후 태풍 발생 수는 평년(14.5개)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평년(2.1개)과 비슷한 2개 정도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아들 온다니…가슴 떨린다"

117일만에 석방 '동원호' 이기만씨 순천집 표정

"내일 모레면 넉 달째인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 다행입니다."

피랍된 지 117일 만에 석방타결 소식을 전해 들은 '동원호' 조리사 이기만(41)씨의 모친 김도순(66·순천시 서면 지본리·사진)씨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지난 29일 친척들의 전화로 아들 석방 소식을 접한 김씨는 "말할 수 없이 좋고 가슴이 떨린다"면서 밤새 잠을 못 이뤘다. 마을 주민들도 김씨 집을 찾아 함께 기쁨을 나눴다.

김씨는 "엊그제 화요일인가 TV에서 밤늦게 아들 모습을 비춰주어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면서 "살아 있어 좋기는 한데 지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김씨는 또 "빚 갚으러 간다는 전화 한 통하고 떠나더니 이렇게 애미 속을 태울 수 있느냐"며 아들에 대한 원망스런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씨는 "목숨이 잘못됐을까 싶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회사로 전화를 걸어 소식을 들은 게 전부였다"며 "아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회사와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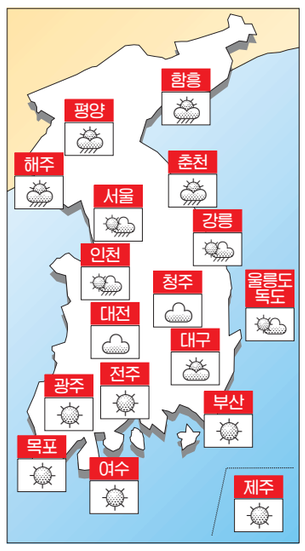
날씨

땀이 줄~줄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7월 31일 (음 7월 7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25~33℃
목 포	구름조금	25~32℃
여 수	구름조금	24~30℃
완 도	구름조금	24~32℃
구 례	구름조금	25~34℃
해 남	구름조금	24~32℃
장 흥	구름조금	24~33℃
고 흥	구름조금	23~32℃
순 천	구름조금	24~33℃
영 광	구름조금	24~33℃
진 도	구름조금	24~33℃
전 주	구름조금	25~34℃
남 원	구름조금	23~34℃
정 읍	구름조금	24~34℃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2.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5:36 18:05 썰물 10:57 23:07
여 수 밀물 00:04 12:26 썰물 06:07 18:22

▲해뜸 05:40 ▲해짐 19:37 ▲달뜸 11:00 ▲달짐 22:3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날 씨						
최저/최고	24/33	24/31	25/32	25/33	25/33	24/32

대한항공 북극항로 방사능 논란

회사측 "극소량 방출"
조종사 "체내 쌓일 것"

대한항공이 미주노선의 운항시간 단축과 항공유 절감을 위해 8월부터 북극항로를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항로와 관련한 논란으로 대한항공 내부가 어수선하다.

◇북극항로 위험한가=조종사들은 "북극항로를 자주 오가다 보면 체내에 방사능이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다"며 "북극 항로 운항은 월 1회로 제한하고, 국제선 항공기에 방사선 측정 장비를 비치해 매 운항마다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등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북극항로 1회 운항시 노출되는 우주 방사선의 양은 극소량인 0.07mSv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존 미주 노선에 운영하는 캄차카항로나 북태평양항로와 같은 수준이며, 비행시간 단축에 따라 방사선의 노출량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극항로 통하면 항공료 내리나=대한항공이 북극항로 이용을 추진한 것은 비행시간을 단축해 항공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비행시간을 줄여 항공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위 78도 이상의 추운 북극 지역을 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연료 결빙을 막기 위해 추가비용이 들어가 항공료를 낮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승객들은 미주 대륙에서 돌아오는 비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북극 상공에서 펼쳐지는 오로라 쇼를 즐길 수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출입문 사고 첫 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이모(여·29)씨가 끌고 가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였는데도 전동차를 출발시켜 이씨와 이씨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여·32)씨에게 처음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의 출입문 여닫기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